

더민주 진성준 의원, 강서를 아권후보 단일화 제안

4·13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국민의당 김용성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서를 지역의 아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서구에는 국민의당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의 공원이 확정된 상태다. 진 의원은 “강서구에서 국민의 부름에 충실해야 할 아권후보는 김용성과 진성준 뿐”이라며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을 소명 역시 우리 두 후보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등록기간인 오는 24~25일 전에 아권의 단일대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 후보등록기간까지 시간이 촉박해 통례에 따른 여론조사 경선방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별히 김용성 후보가 희망하는 방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도내 보건의료인 1300명, 김성주 후보 지지 선언

전북 보건의료인 1300명은 22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전주형)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보건의료인 1300명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피부미용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민 건강 증진과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가 바로 김성주 후보임을 확신하면서 김성주 후보의 20대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주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간사와 당 의료연대와 저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더 가난해지는 민간의 약손해를 줄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앞장서왔다. 특히, 보건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성주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사회복지사 700명, 장애인단체 600명, 어르신 450명에 이어 이날 보건의료인 1,300명까지 총 3,050명이 참여했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전북지역 4차 여론조사 개표결과 발표

김관영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4차 여론조사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 을 지역에는 36.3% 득표율로 강세환 예비후보(전 18대 국회의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에는 60.1% 득표율로 임정엽 예비후보(전 완주군수)가 국민의당 최종 예비후보로 선정됐다.

또한 익산시지역에는 87.0% 득표율로 정현을 예비후보(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이영훈 예비후보 33.0%를 누르고 선출됐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도-도교육청 2015 결산감사위원 위촉

전북도의회는 22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감사위원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해속 도의원을 비롯해 재무관리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오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전라북도과 교육청의 2015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영배 의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벌여서라도 예산의 낭비 요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결산감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액은 전북도 5조8424억원, 전북도교육청 2조8753억원 등 총 8조7177억원이다. 결산감사 의결서는 5월초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결산서에 첨부해 도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6월 1차 정례회 결산을 심의하게 된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문건위, 세계태권도선수권 성공 개최 기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2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제23회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들은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도민과 국민이 한마음 한뜻을 모아 성공적인 대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태권도 중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태권도위를 홍보하고 태권도 중주국인 대한민국과 전라북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세계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건위 이성일 위원장은 “앞으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라는 집을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짓기 위한 출발점인 조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도 예산지원 방안을 도에 요청하는 등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안호영 vs 임정엽 ‘소지역주의’ 대책 승패 관전

(더민주) (국민의당)

Report 제20대 총선 격전의 현장을 찾아 - ⑩완주진무장

출신 지역에서 인지도 높은 안호영·임정엽 해당 지역 예측불허 요소 해결 방법이 관전포인트 새누리 신재봉·무소속 민경선 후보도 적극 도전

완주·진안·무주·장수(이하 완주진무장) 지역의 선거구도는 관세를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로 ‘완진무장(?)’에 있다. ▲선거와 관련된 지역적 유대가 없는 지역까지의 선거구 획정 ▲후보자 선정까지의 불협화음 ▲‘소지역주의’ 선거구도의 심화 우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엽 예비후보가 해당 지역 예측불허 요소에 대한 ‘무장 해제’ 방법이다.

22일 기준 완주진무장은 새누리당 신재봉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안호영 예비후보, 국민의당 임정엽 예비후보, 무소속 민경선 예비후보 등이 금뿔지를 걸고 자웅을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더민주당 안 예비후보는 진안 출신으로 현재 진무장의 절대적지지를 받고 있음은 물론 완주지역 인지도가 높아 해당 지역의 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는 연세대 법대와 전북대 법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와 농민 등을 대변하는 시민사회활동이 꾸준한 덕담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제19대 총선때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석패한 뒤 이번엔 박민수 의원(더민주당, 진무장임실)과 유희태 전 기업은행 부행장과 의 경선을 통해 공천포탈만큼 그 여세를 본선까지 이어간다는 전언이다.

국민의당 임 예비후보는 8년간 완주군

수를 역임하면서 로컬푸드를 성공시킨 장본인으로 완주내 인지도가 높다. 전주대를 졸업해 무기력한 전북 정치의 존재감을 되찾자는 ‘원형 정치’의 실천을 내세우는 그는 로컬푸드 성공과 더불어 밥 먹여주는 정치, 민생정치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공천심사위가 전과 전력을 이유로 경선참여 후보자격 부여를 거부했음에도 국민의당 최고위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 선거대책위원회의 판단으로 경선 후보에 합류했다. 그 역시 경선 승리를 바탕으로 한 분선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 신 예비후보는 진안평창초등학교(현 백운초등학교)를 졸업한 진안 출신으로 현 총·효·예 실천운동본부 전북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야당 우세지역의 틈바구니에서 약진고투하며 여당에 결집에 힘 쏟고 있다.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낸 민경선 전 대구의대 교수는 완주 용진 출신이다. 그는 원광대를 졸업하고 전국대학레슬링연맹 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대 선거때 진무장임실과 김제완주의 선거구는 20대 총선에서 완주진무장으로 재확정 됐다. 이번 선거가 무리한 선거

구 획정과 그에 따른 ‘소지역주의’ 심리가 커지는 만큼 각 후보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정가 의견이다. 특히 2강으로 예상되는 안 예비후보와 임 예비후보는 각각 출신지가 다르기 때문에 완주진무장 지역의 선거 관세는 새로운 선거구의 주민들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인물에게 무게추가 실릴 전망이다.

또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후보 선정시 발생한 불협화음 해소도 해당 지역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해 더민주당의 경우 현역의원인 최규성 의원(김제완주), 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이 결과를 승복하는 분위기여서 예선전에서의 잠음은 어느 정도 해소된듯 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당 임 예비후보의 경우 후보 경선 참여시 불거진 당내 잡음을 잠재우고 당내 갈등 봉합 및 지지세를 결집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야당 후보들끼리의 출신 지역이 달라 그에 대한 선거대책이 실질할 때”라며 “선거구 재확정으로 인한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당의 결집력과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을 무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김종인, 비례순번 비대위원에 ‘위임’

거취 관련 “좀 더 고민해볼 것”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2일 당 비대위에 참석,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했다. 김 대표는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당내 비난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입장을 비대위원들에게 밝혔지만 사퇴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비대위원회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갖고 “김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며 “사퇴나 아니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늘은 비대위를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의결사항을 처리했다”며 “비대위원들에게 지체 앞에서 언론에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종인 대표는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선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고, 모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원에게 서운했던 점을 밝히며 비대위원들은 일반당원들과는 달리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비례대표 순위투표 결과와 대표 몫 전락자명 4명, 분야별 당선인정원 비율 등을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하는 작업을 비대위원들에게 위임했다. 자신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비대위원들은 김 대표가 퇴장한 후 회의실에 남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논의를 다 한 후 김 대표에게 추진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신상이든 대면이든 결정할 후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표가 스스로 의 번호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정장선 총선거기획단장은 “김 대표가 정상적으로 당무를 봤다”며 “비대위원들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면 23일에 아마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비대위 회의에 김 대표가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은다”고 답했다. /이성주 기자

익산시장 재선거... 더민주 vs 국민의당 양강 구도로

강팔문이나, 정현을이나?

(더민주) (국민의당)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 구도 속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군이 추격하는 형국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과거 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익산지역이 신당 출현으로 힘이 약화됐으나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강 구도의 선거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역 지지도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과 각 정당의 이탈표를 흡수하기 시작한 무소속 후보가 뒤를 쫓으면서 치열한 선거전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더민주의 익산시장 후보로 강팔문 후보를 선택했다.

강팔문 후보는 남성고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등의 자리를 거쳤다.

특히 만성직자에 시달리던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해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키는 등 남다른 능력을 보여줬다.

강팔문 후보는 그러나 지역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단점을 더민주의 조직력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산시장 당선의 영예를 안기위해 국민의당에서는 정현을 후보가 대표 선수로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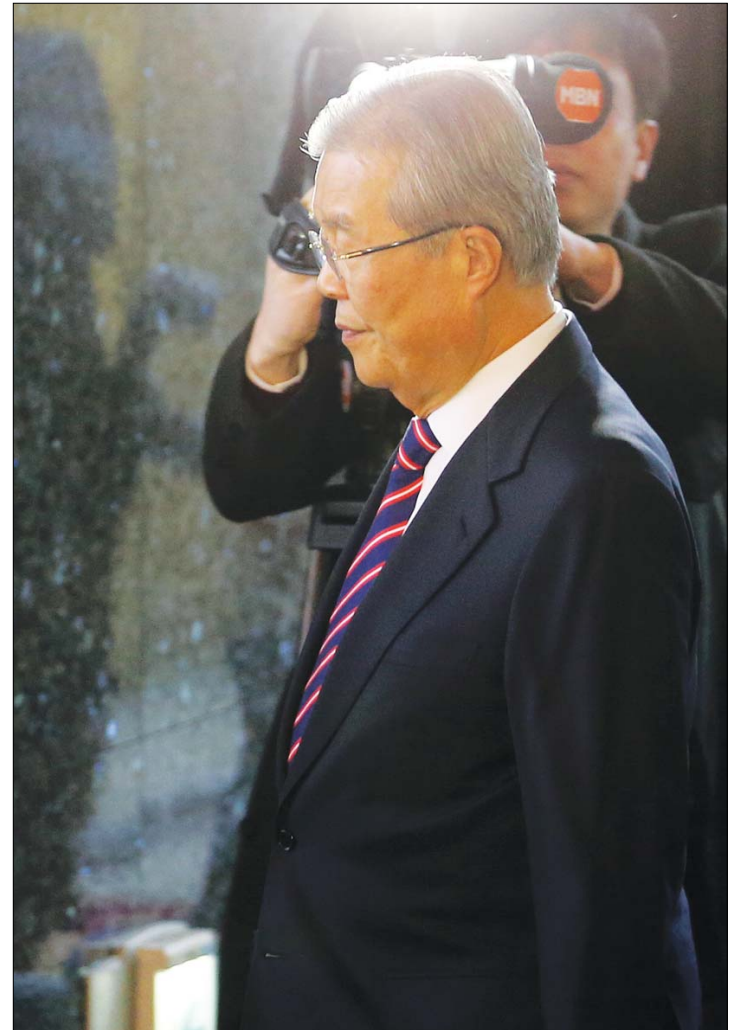
정현을 후보는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행정능력을 검증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을 역임해 재무행정에 대한 전문기질을 자신하고 있다.

정현을 후보는 지난 6·4지방선거에 익산시장으로 출마,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최행식 후보가 익산시장에 당선되기 위한 행보를 걸고 있고 무소속 김은진 후보도 출사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 구도 속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의 맹추적이 전개될 익산시장 재선거는 4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퇴장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퇴장하고 있다.

내일·모레 후보자 등록 신청접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오는 24~25일 2일간 받는다.

이반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기호를 결정한다. /신광영 기자

도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junc.gakr)를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후보자의 경력,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할 수 있으며,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3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기호를 결정한다.

도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junc.gakr)를 통해 후보자 등록신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후보자의 경력,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